

1 상무소각장 언제 어디로 가나

양과동 매립장·송대하수처리장 유력

내구연한 5년 남아 빠르면 2013년 이전

강운태 시장의 9일 '상무소각장 이전' 발언은 관련 실과 담당 직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강 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나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공언해 무언가 복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무소각장은 지난 1994년 설치계획이 수립된 뒤 743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8년 말 준공됐으며, 2001년 하반기부터 정상 가동됐다.

문제는 상무소각장이 광주의 신도심으로 부상한 상무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행고도제한으로 인해 굴뚝 높이를 85m 밖에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지역민들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05년 '상무소각장 설치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상무소각장의 환경상 영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소각장 이전'이라는 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민과의 '접점'을 찾아냈다. 강 시장은 소각장이 정상가동된 지 10년이 넘도록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 내구연한(15년)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하루에 1480t으로 이 중 60%인 910t은 재활용되고 있으며 290t은 매립, 280t은 소각되고 있다.

강 시장은 소각장을 옮기기 전까지 하루 소각량을 190t까지 줄여 현재 설치된 200t 용량의 소각로 2기 가운데 1기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매립+소각'이라는 쓰레기 처리방안 자체는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부터 가동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은 30년으로, ▲매립장 부지 확보에 들어가는 막대한 행정·재정적인 부담 ▲소각에 따른 폐열의 에너지화 정책 등으로 인해 소각장은 따로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애초 상무소각장은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으로 갖어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 지역 역시 비행고도제한구역에 해당하며, 주변 인구가 늘고 추세가 부지는 부지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사시설의 집적에 따른 영향 최소화 관점에서 남구 도대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주민 반발이 예상돼 불투명하다.

이정삼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정책 의지에 따라 이전 시기는 2013년으

상무소각장 일지

- ▲1994. 04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계획 수립
- ▲1996. 06~2000.09 상무소각장 설치 공사
- ▲2001. 02 주민 대책위, 설치 무효소송 제기
- ▲2001. 07 정상가동시작
- ▲2007. 12 무효소송 대법원 기각
- ▲2009. 04~2010.06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로 1~2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원칙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서둘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나주·담양·영광·장성·화순 등과의 광역경제권 구성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규모도 부지와 관련 그 범위를 넓혀 소각장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 무등산 군부대 이번엔 이전되나

국방부 설득 여부에 성패

공군비행장과 연계 상당한 진통 예고

강운태 시장은 2012년까지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는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가시화됐지만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강 시장이 국방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무등산 공군부대이전은 광산구 일대 공군전투비행장과 연계돼 있어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등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부대는 지난 1966년 광주시 광산구 일대에 들어서 공군전투비행장과 함께 설치됐다.

서석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 방공포대로 인해 무등산 정상은 오랜 시간 통행이 금지되고 접근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1990년 정상 일부가 개방되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시가 14억원을 투입해 일부 자연생태를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광산구의 공군전투비행장과 무등산의 공군 방공포대는 서로 연계돼 있으며, 따라서 비행단을 이전하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체할 경우에만 군부대 철거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계속 반대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는 이후 지난해 6월 오히려 생활관을 확충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무등산공원위원회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제 또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국방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군부대

무등산 군부대 일지

- ▲1966 광산구 공군비행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설치
- ▲1990 무등산 정상 일부 개방
- ▲1996~2006 정상 부근 자연생태복원 사업 실시
- ▲2007. 05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무등산 군부대 철거' 지시
- ▲2009. 06 무등산 군부대 생활관 확충 계획 부결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45년이 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정당성도 있어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포사격장에 이어 무등산 공군부대까지 광주시내 각종 군사시설 이전을 국방부에 잇따라 요구하고 있어 국방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뒤로 가는 지역균형발전

靑 국정기획실 폐지로 지역발전비서관 위상 약화 한전+한수원 통합 땀 나주-경주 유치 갈등 우려

최근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지역발전비서관이 수석과 비서관 사이 직급인 정책지원관 아래 비서관으로 옮겨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정기획수석실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담당이었던 지역발전비서관이 새로 신설된 정책지원관 아래로 등지를 옮기면서 위상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지역발전비서관도 지역발전 정책의 기획과 조율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위상까지 약화되자 MB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지역관련 정책이 확대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이후 비수도권 혁신도시들이 일부 합병 대상 공기업의 이전지역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발전위원회나 국토해양부 등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통합을 앞둔 한전과 한수원의 경우 한전은 나주로, 한수원은 경주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양 공기업이 통합되면서 나주와 경주 사이에 '한전+한수원' 유치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합이 완료된 토지주택공사 역시 진주와 전주가 총출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지역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7~9일 제주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개발을 도모하는 '초(超)국경 지역발전 정책'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어 반향을 사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퇴보가 우려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달라 새삼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지)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다리 잠길까 걱정

광주·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11일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추진된 광주시 남구 승촌보 건설 현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보 상류 300여m 지점에 위치한 학산교가 침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우산을 든 마을주민들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확산고는 이날 오후 4시에 통행이 전면통제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함평 240mm 집중호우

주말과 휴일인 10일과 11일 광주·전남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200mm 안팎의 큰비가 내렸다. <관련기사 6면>

지역별로는 11일 오후 7시 현재 함평이 240.5mm로 가장 많았고, 이어 ▲

광주시 광산구 219mm ▲담양 212mm ▲신안군 지도 205mm ▲무안 202.5mm ▲홍도 194mm ▲광주시 북구 193.5mm ▲흑산도 184mm 등이다. 광주·전남에 발표된 호우주의보·호우경보는 11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광주·전남 지역별 누적 강수량 (11일 오후 7시 현재 단위:mm)

| 지역 | 강수량 |
|---------|-------|
| 함평군 | 240.5 |
| 광주시 광산구 | 219.0 |
| 담양군 | 212.0 |
| 신안군 지도 | 205.0 |
| 무안군 | 202.5 |
| 장성군 | 179.0 |
| 곡성군 | 169.5 |
| 나주시 | 169.0 |
| 영광군 영산면 | 166.5 |
| 순천시 | 165.0 |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세계의 뉴스를 한눈에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제공합니다.

www.연합뉴스.com

연합뉴스